

제 목	국 문	한국인 65세 이하 인구의 잠재수명손실의 추이, 1983-1992년		
	영 문	Temporal trends of years of potential life lost(YPLL) before age 65 in Korea, 1983-1992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충원, 이민재, 박종원, 서석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Choong Won Lee, Min Je Lee, Jong Won Park, Suk Kwon Suh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종원(전공의)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전통적으로 조사망률과 연령조정사망률을 이용한 사망통계는 사망이 주로 고연령층에서 일어나 고연령층의 원질환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젊은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사망에 가중치를 두어 조기사망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대안 중 하나가 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에 의해 만들어진, 잠재적으로 손실된 생명년(years of potential life lost, YPLL)이다.</p> <p>YPLL은 특정한 사망원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서로 비교하고, 조기사망 양상의 연간추이를 감시하는데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사망률에 대한 조사에서 벗어난 사망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저자들은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망원인통계를 이용하여 1983년에서 1992년까지 우리나라 65세 이전의 인구에서 잠재수명손실의 정도와 10년간에 걸친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조사자료는 1983년에서 1992년까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망원인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사망원인 중 분류가능한 자료의 기본분류에 따른 성별,연령별(5세)로 제시된 사망자수를 이용하였다. 잠재수명손실의 계산은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각 사망에 의해 손실되는 YPLL의 수로 정의되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방식을 이용하였다.</p> <p>조사에 포함된 사망원인은 미국 CDC에서 선정하여 사용되는 악성신생물, 당뇨병, 심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및 인플루엔자, 만성폐색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선천성 이상, 미숙, 유아 급사망증후군, 불의의 손상, 자살 및 타살의 12개 사망원인과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은 결핵을 포함하여 총 13가지였다.</p> <p>1983년에서 1992년간의 시간적인 추이와 남녀간의 비는 잠재수명손실률(YPLL rate)로 비교하였고 YPLL률은 전국인구조사가 시행된 1985년과 1990년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법으로 계산하였다.</p>				

3. 연구결과

1983년의 총 YPLL은 2,756,878년이었다. 남자의 YPLL은 1,734,456년이었다. 13개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손실을 보인 것은 불의의 손상으로 405,806년이었으며, YPLL의 23.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악성 신생물이 185,159년(10.7%), 심질환 148,259년(8.5%), 뇌혈관 질환 96,050년(5.5%), 만성 간장질환 및 간경변 91,175년(5.3%), 폐렴 및 인플루엔자 85,422년(4.9%)이었다. 여자의 YPLL은 1,022,422년이었다. 남자와는 달리 악성신생물이 136,977년(13.4%)으로 가장 높은 손실을 보였고, 2위는 불의의 손상이 122,050년(11.9%)으로 남자의 절반이었다.

1992년의 총 YPLL은 2,162,305년이었다. 남자의 YPLL은 1,504,841년이었고 불의의 손상이 550,040년으로 YPLL의 36.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악성 신생물이 232,969년(15.5%),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은 122,945년(8.2%) 순이었다. 상위 5위의 사인은 1983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당뇨병과 선천성 기형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순위를 보였다. 여자는 총 657,464년이 조기손실되었고 이중 불의의 손상이 154,614년(23.5%)이었고 2위는 악성신생물로 130,545년(19.9%),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47,725년(7.3%), 심질환 43,374년(6.6%)순이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YPLL은 1983년 남녀모두에서 2,756,878년이었으며 남자는 1,734,456년, 여자는 1,022,422년이었다. 1984년에 총 2,778,055년으로 198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는데 여자는 1,003,648년으로 감소하였으나 남자가 1,774,407년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5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를 시작하여 1992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92년 총 YPLL은 2,162,305년으로 1983년을 기준해서 78.4%로 감소하였으며, 남자는 1,504,841년으로 86.8%, 여자는 657,464년으로 64.3%로 감소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소가 관찰되었다.

1983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인구 1,000명당 사인별 연령보정 잠재수명손실률의 변화를 퍼센트 변화로 관찰하였다. 남자의 잠재수명손실은 1983년의 90.4년에서 1992년의 70.1년으로 22.5%감소하였고 여자에서는 1983년의 53.3년에서 1992년의 39.3년으로 26.3%감소하였다.

4. 고찰

1983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에서 잠재수명손실은 기존의 사망률과는 다른 측면을 반영하여 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잠재수명손실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의의 손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